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8호 [주간 제2592호]

주체 109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음력 4월 1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펼쳐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국제사회계가 격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시고 인민적정도의 위대한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애민정치가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위인의 정치방식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연구소는 김정은령도자께서 현지지도하시는 영상들을 보면 대중적이고 다심하신 모습으로 일관되어있다.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분석하면 인민생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평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인민을 위한데로 집중되어있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커다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루어지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각하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펼쳐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선정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김정은각하는 령도를 떠나서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과 조선인민이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방글라데시인민련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조선로동당이 펼치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내세우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시는 한편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보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열사부무를 할 것을 강조하신다고 브라질신문 《아구

아 베레데》는 전하였다. 이란의 일사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야말로 고매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이다.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펼치는 정치인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표현한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김물물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철학은 숭고한 인민관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예절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인민의 존재가치를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떠올리신데 그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열사부무정치철학의 가장 철저한 구현자이다.

그이의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의 정치철학은 조선사회의 인심을 그리잡고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은 인민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를 보았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권위원회 인사들도 김정은각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영상을 보으면서 그이께서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시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은각하와 같은 인민적정도를 높이 모신 조선사람들이 정말 부럽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라

오는 3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48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 61(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교류경제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남측대표를 만나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혀 주시었다.

이날 남측대표를 너그럽게 맞아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근본원칙을

제출하시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민족단합대강인 민족대단결5대방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노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향을 밝혀 주시었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통일위업수행의 불변의 지침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는 민족문제 해결의 핵

심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에 맞게 옹호해 나갈 수 있다. 민족자주의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대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와 공조를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 하며 련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반드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가 지니고있는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면 민족적재난을 피할 수 없다.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충돌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동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지어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송경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식사회주의

외국의 인사들 강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승리만을 펼쳐고있는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은 진보적인류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을 같은 열백번도 더 주저 않았을 엄혹한 시련을 막아내고 자력갱생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의 기상은 정말 대단하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위급해지고있지만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굴함없이 사회주의

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전진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조선의 모습은 날을 따라 일신되고있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 위원장 가브리엘 곤잘레스 마르티네스는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오늘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불변하다.

온갖 도전과 고난을 이겨내며 끈덕없이 국가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선은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의만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안겨준 인류의 등대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대표단 단장 와질 꾸지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특유한 관계 다시말하여 혼연일

체에 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 받들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조선사회의 참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바로 김정은동지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이를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식사회주의는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적으로 수많은 그물우리양어장 조성

공화국에서 그물우리양어가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수산성 양어관리국과 산하단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연간 조성해야 할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았다.

평양시양어관리국에서는 2만여㎡의 그물우리를 설치하고 물고기생산토대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도 그물우리양어장을 늘이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장연호에 먹이 공급으로부터 온도, 폐하 등을 실시간 감시조종할 수 있는 원격조종장치를 갖춘 현대적인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았다.

회령시와 김책시의 중어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수지, 송용적수지에 각각 200여㎡의 그물우리양어장을 새로 조성한데 이어 새끼물고기확보에 힘

을 넣고있다. 자강도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물고기의 생육조건이 유리한 청천강수역에 그물우리양어장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있다.

양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서해감분사업소를 비롯한 남포시의 수십개 단위에서도 자체로 제작한 그물우리들을 대동강과 삼화천 등에 설치하고있다.

이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가슴깊이 새기고 건설공정별로 시공기준과 건설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누가 보건발전 순결한 량심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단위별협동을 긴

평양종합병원건설이 더 좋은 래일을 향해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시위하며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금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기초공구트리트기와 골조공사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아무리 설비가 잘되고 질 좋은 자재를 쓴다 하여도 시공을 잘하지 못하면 건설물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건설자들은 총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파급한 전격전을 벌리며 건설물의 질보장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꺼질줄 모르는 불빛

—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

밀히 하고 문전기재들의 가동물을 부단히 높여 생산된 혼합물을 불이 번쩍나게 타 입하고있다. 현재의 날씨 조건을 잘 고려하여 이미 시공된 층막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온도보장대책을 세워 콘크리트양생에 적합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한편 휘발 및 철근조립 등을 미리 앞세워놓고 혼합물이 도착하는 즉시 모든 량량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콘크리트입속도를 높이고있다.

건설련합사무의 일군들은 평양종합병원을 현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고 오늘뿐 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인민의 생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무결한 건

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건설련합사무와 각 시공단위에 조직된 질검사위원회들이 건설물의 질보장에 대해서는 매일 총화과 대책

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시공조직과 지휘를 방법론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건설물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일 총화과 대책



본사기자



장연호에 새로 꾸려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는 전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지고있다. 악성비루스는 4월 28일 24시 현재 210개 나라와 지역을 휩쓸면서 313만 6 174명의 감염자와 21만 7 7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의 정부요인들과 국

가수반들까지 감염되고 세계지구모에서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국제올림픽경기대회까지 연기되게 한 사태는 세계적인 대유행전염

병의 위협성과 후과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잘 말해준 다. ◆ 전세계가 악성비루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악성비루스로 인한 위기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얼마전 유엔사무총

장파 로마법왕은 세계적인 《COVID-19》위기해결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국제적분쟁들을 일체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예멘 호시

는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의 불꽃이 계속 일고있다. 얼마전에도 경성북도 포항 앞바다에서 룩, 해, 공군 의 지원밑에 해병대 합동

의 평음이 울리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브 호크》 등 전쟁장비반입도 계속되고있다. ◆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각종 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악성비루스를 퇴치하기 위

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배치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악성비루스와 싸움 대신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남조선군부가 가당케 될 총착점은 파멸의 구렁렁이바에 없다.

을 따라세워 반복시공, 오작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평양종합병원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있게 훌륭하게 일떠세울 전체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가득찬 건설장은 깊은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악성전염병과 전쟁연습

반란군과 싸우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정화를 발표하였으므로 팔레스타인과 가세, 필리핀에서는 무장단체 싸움이 싸움을 중지하려는 의향을 내비쳤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상륙훈련이 광기를 띠고 벌어졌다. 남조선강원도 름계군에 있는 훈련장에서 수 천명의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야전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이 주인된 세상

공화국의 각지 근로자들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30돐을 보내었다.

평양326전선공장의 노동자 김철민은 세상에 나라가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나라의 주인, 공장, 주인이 된 공지를 안고 이날을 맞은 근로자들은 없을것이라며 이공지와 자랑을 안고 더 큰 로력적성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원에서 일하는 리금숙연구사는 우리 과학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사로 내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언젠가 잊지 않고 더 많은 과학기술성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공화국은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된 세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공화국에서 자기의 국호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조선로동당의 기록에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한 마차와 낫과 붓을 새기도록 한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누리는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잘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고 위대한 주제사상을 창시

하시고 그것을 정치에 구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일터 세우셨었다.

근로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시는 그이의 정도방식은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공업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매 력사적단계마다 뚜렷이 파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강철의 로동자들을 찾으시어 강재 1만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나라를 타개해 나가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었다.

그이의 믿음을 받아안은 강철의 로동자들은 6만능력의 분과업인으로서 12만능의 중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렇듯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그 믿음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서는 몇백년이나 걸려야 한다는 공업화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건을 제함으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어 모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우시고 당과 국가활동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도록 하시었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은 멀리 않아 무너질것이라고 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에 광분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셨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려오시었다.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시고 강선과 회천, 라남과 홍남을 비롯한 도처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세차게 라오르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인민의 행복을 기쁨과 락으로 여기시며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조국의 높은 산, 험한 령을 넘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찾아 걸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지도 강행군길이 있어 이 땅우에는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주제철, 주제비날론폭포가 쏟아지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곧센 의지를 파시하며 대개도간척지가 무연하

게 펼쳐지고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결이 완공되고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받들어 이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오신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는 또 한편의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것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의하여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은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하게 하신 가슴뜨거운 말씀을...

...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이 정지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그이의 신조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이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조선로동당도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의 근로자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고 안겨주시는 창조물, 제부들도 헤아릴수 없는 많다.

로동자들을 위해 합숙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세워주시길 길 아닌 길을 헤치시며 그 리전도 잡아주시였으며 공장을 찾으실 때 마다 로동자들의 생산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이이다.

수도의 중심부에 번듯하게 일떠선 창천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로동자, 사무원,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대중이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어느 시기에도 인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근로인민들처럼 진정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가고있는 존엄높은 인민, 행복한 인민은 없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한복소리로 말한다. 우리 세상은 로동자들의 세상, 인민의 세상이라고.

이런 참다운 세상을 세워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더욱 꽃피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뜻과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올림으로 일떠세우려는 온 나라 인민의 기상과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

본사기자 주일봉



러머거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과학자, 교육자들 (2017년 4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구내에 일떠선 로동자합숙 (2017년 1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주제 101(2012)년 4월 비 내리는 낯은 날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자리잡은 민수교교기상점을 찾으시었다.

상점의 내부를 돌아보시고 3층 로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변경치가 아주 좋다고, 교기상점자리가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에서 이번엔 인민들을 위

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민수교교기상점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관심속에 건설된 상업봉사지이다.

그 전후에 보통문거리교기상점을 건설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상점을 수도의 곳곳에 일떠세워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수교교기상점을 앞날 부지를 몸소 정하여주시고 건설을 인민대중이 맡아하도록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여러차례 건설장을 헌지지도하시고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인민성, 친철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주방의 위치와

상점간판과 같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군인건설자들은 고기제품들을 병사반을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와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의 운영과 상품보장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인민들이 민수교교기상점의 덕을 본다든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그곳을 떠나시었다.

본사기자

매투과 흠모

탁월한 군사의 영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수 없는것이 탁월한 군사적 자질이다.

그이는 령장의 자질과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신 장군중의 장군,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주제의 군사사상을 완전히 터득하시고 동서고금의 모든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도 다 통달하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이의 군사적안목은 대단히 넓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밤늦도록 길은 사색속에 책을 읽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그 책은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전략술에 대하여 기록한것이었는데 여백에는 그이께서 쓰신 여러가지 표시들이 있었다.

보시던 책을 밀어놓으시며 일군을 반갑게 맞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은 과거의 모든 전쟁들을 종합하여 전개되는 지혜전이며 전략전이라고 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뛰어난 군사적안목과 식견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세부에 지나지 않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군사 령장의 모든 분야에 완전히 정통하신 만능의 군사전문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을 비롯한 군종은 물론 그를 이루는 모든 병종, 전문병분야에 대하여 작전술로부터 무장장비와 그 사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식견을 지니고계신다.

오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첨단기술에 기초한 여러가지 무기, 전투기술기체들이 개발생산되어 그 종류와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판도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한 나라의 군대가 장비한 무장장비들에 대하여 그것도 전 통가이상으로 정통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전시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어느 한 땅크얌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강사가 서울해방전투때 시내에 제일먼저 들어간 제312호땅크라고 해설해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련한 전투의 흔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사건같은 땅크를 주의깊게 바라보시다가 문득 그 땅크의 형과 땅크포 구경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였다.

이미 강의안에 준비되어 있던 문제인지라 강사는 《T-34》 땅크이며 땅크포의 구경은 76mm이라고 제책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T-34》 땅크는 포신이 긴것과 짧은것이 있는데 포신이 짧은것은 포의 구경이 76mm이고 포신이 긴것은 85mm이다. 이 땅크는 포신의 긴데 포의 구경이 85mm인것이다. 앞으로 이 땅크포의 구경을 재보고 확인성있게 말씀하시었고는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강사와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 땅크가 전시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 국내외의 한 다하는 군사가들과 장비전문가들, 학술연구원들까지도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해설을 들은 하였지만 땅크포의 구경에 대한 해설이 잘못되었는것을 발견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디를 가시여도 인민의 목소리를 즐겨 들으시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다.

주제 107(2018)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서북단에 있는 신도에 배를 타고 찾아가시었다.

낯은 날에 물결도 사나와 일군들이 부두에 배를 대기 어렵다고 거듭 말씀올리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저 섬에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있다고, 그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험한 바다길을 끝까지 헤쳐가시었다.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명군술, 무비의 당력과 배짱을 지니신 그이를 국가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오늘 공화국의 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애에 격파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포병부력강화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얼마전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에서 포병부력의 리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만큼 우리는 계속 포병중시, 포병강화의 구조를 내들고 포병사용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과 포무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출중한 군사적 영재를 모시어 공화국의 군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운명은 믿음직하게 지켜지고있다.

김창운

나를 부르는 소리.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고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는 그이께서 하신 심중의 토로였다.

주제 103(2014)년 국제야동절에 평양에유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원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애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주시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하며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 출장지에서 돌아온

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며 중요한 것을 서서 성실한 애국의 맘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 인민들의 목소리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었다.

살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사한 새생들이 자매의 가정을 찾으셨을 때

말하였더니 모두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오뎅처럼 말씀올렸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남바다우에 떠있는 고압-담춘철길



고압, 담춘, 송천반도, 석전만...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지방들이다. 허나 지금은 누구나 안다. 2018년 5월 30일, 현지에서는 동해지구 석전만의 남바다를 횡단하는 고압-담춘철길 개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공화국의 첫 해상철길인 고압-담춘철길. 이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적의 창조물이다.
푸른 잔디들과 이채로운 장식관들로 단장된 호안은 도시의 유보도를 방불케 하고 산뜻한 가로등들이 줄지어 선 해상철길다리는 한쪽의 그림자다.

담춘지역도 고압과 연결되어 새 풍경을 펼쳐냈다. 직선으로 가던 불과 몇리밖에 안되는 길을 수십리나 에돌아다니던것이 이제는 옛말로 되었다고, 눈뜨고도 꿈을 꾸는것 같다고 이 고장 사람들은 격정을 터치고있다.

새 차갈도 생기고 산기슭에는 철도종업원들의 아담한 마을도 생겨났다. 철길의 한 끝에 이르면 담춘철길소재 및 운전지휘원실이 덩실하게 솟아 또 눈부리를 끈다. 세계에는 나름대로 유명한 해상철길들이 있다.

고압-담춘철길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자랑스러운 것인가.



힘을 들었어도 많은 경험을 쌓았을것이라고,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젖게 한다.

고압-담춘철길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안아올린 자력갱생의 창조물인것이다.

공화국에서의 첫 해상철길 건설이라는 초항길을 헤쳐야 했던 건설자들은 사나운 남바다와 싸웠다. 허나 그들은 남을 쳐다보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새 기술,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자!
이것이 사나운 풍랑도 꺾을 수 없었던 고압-담춘철길 건설자들의 신념이었고 의지였다.

이 건설에서는 공화국건설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 공법, 새 기술들이 참으로 많이 창조되었다.

서 처음으로 가물막이를 하지 않고 해상기초를 박아 건설한것이고 큰 은을 낸 풍크리트암송기술도 철도구조물시공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런 현대적인 공법들을 남들처럼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대형설비로가 아니라 자체의 설비와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이다.

만일 어렵다고 남을 쳐다보았다면, 힘들다고 남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면 이 새길은 창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력갱생의 캐논은 과학기술의 힘으로만 열여갈수 있다!
이것이 해상철길건설자들이 새길 귀중한 철리였다. 그들은 어려울수록 과학의 보검을 더 굳게 틀어쥐고 이런이 곁을 더 세차게 일으켰다.

자력갱생정신에 과학기술을 더할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고 안아오지 못할 기적이 없다는것을 자기의 산화속으로 증명하는 고압-담춘철길이야말로 과학으로 비약하고 전진하는 공화국의 눈부신 속도인것이다.

첫 해상철길이 뻗어나간 나날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으로 하여 공화국이 엄혹한 길을 건넌 시기였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서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역적의 신념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에서 헤쳐 오신 자력갱생의 행군길, 바로 그 길에는 그이와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고압-담춘철길건설자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상철길건설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었다. 주저않을세라 어려운 고비마다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었고 친어버이 손길로 떠밀어주시었다.

주제 107(2018)년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공정 고압-담춘철길을 현지에서

서 료해하시면서 불수록 호 못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고 말씀하시었다.

석전만의 남바다를 가로지른 해상철길다리는 단숨에 공화국의 첫 해상철길다리라는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 고압-담춘철길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산악같이 일떠설 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산화속으로 증명해준 자력갱생의 대명사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원격교육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원격교육은 한마디로 말하여 교원과 학생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원격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며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하고 실리적인 일생교육수단으로 인정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원격교육은 여러 단계로 발전하여 왔다.

자료에 의하면 1800년대 전반기 어느 한 나라의 대학에서 교과서, 학습지도서, 학습과제 등을 우편물로 먼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보내어 원격교육의 서막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원격교육은 1세대로부터 라디오, 녹음기를 리용하여 강의내용을 다른 지역의 학생에게 보내는 2세대와 유선TV와 컴퓨터를 리용하여 교원과 학생이 호상 접촉하는 3세대를 거쳐 인터넷을 통하여 세

계적인 범위에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다 배울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4세대 원격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의 역사는 비록 길지 않지만 그 기간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원격교육을 보시고 한 대학의 울타리안에 머물러있던 원격교육을 전국적범위에서 진행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었다.

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수공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 원격교육이 시작되었고 그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 전국각지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근로자들이 학생이 되어 고등교육을 받는 새 모습이 펼쳐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대학, 장철기평양공업대학, 한덕수평양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들에 원격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격교육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학습체제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었다.

그 나날 현대원격강의의 중요지표인 컴퓨터지원교수체계와 관리체계, 평가체계 등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원격교육의 질은 날을 따라 개선되었다.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되어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손전화기와 판형컴퓨터를 리용하여 어디서나 강의를 받을수 있어 원격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지방생태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 보급기, 정보교류의 거점으로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이 형성됨으로써 중앙에서부터 향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 정연한 과학기술자보급체계가 서게 되었다.

또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는 원격강의실, 과학기술보급실들이 훌륭히 꾸러지고 국가망을 통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이 빈번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법 원격교육단위만 해도 지금은 전국의 수천여개의 단위들에서 수만명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진행하고있다.

특히 이번에 원격교육법이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었고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자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서 큰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 원격교육체계가 망라된 많은 사람들이 최신과학기술로 자기들의 실력을 다지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생산활동에 이바지하는 창고안명성, 혁신자로 자랑하고있는 등 원격교육의 우월성이 날이 갈수록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렇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할수 있는 원격교육은 공화국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누구나 즐겨 신는 《매봉산》 신발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에는 여러 전시회마다에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는 《매봉산》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원산구두공장이 있다.

사람들이 《매봉산》 신발에 애착을 가지게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도 있지만 신발이 가벼우면서도 댄시가 있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코지 않은 구두공장에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신발을 만들기까지에는 길

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제104(2015)년 1월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원료와 자체를 가지고 두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구두를 생산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이제는 신발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량보다 질을 더 중시하고 하나를 만들어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해 11월 또다시 이곳에 오신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구두를 한결케 만들

어도 인민들에게 질 좋은 구두를 신기겠다는 관념과 립장을 가지고 인민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눈여겨보기도 하고 자식에게 구두를 신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구두가 어떤가 하는것을 물어보기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에 맞게 질 좋은 신발을 안겨주기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에 의해 《매봉산》 신발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상품으로 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강의를 받고있는 근로자들(2018년 10월)

《바다진주》를 찾아 수천리

리영은실장은 차디찬 바다물에 뛰어들었다. 자막질을 하며 다시마를 거두어들이는 자신이 해녀처럼 생각되었다. 바람새가 뚜렷해지면서 파도가 갈기를 끈두세웠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것이 바다의 거창한 예비처럼 여겨졌다.

연구사업에 필요한 다시마를 품종별로 확보하느라 동서해의 그 어디엔가 가보지 않았으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알산과 관련된 효소억제제의 독특한 기능을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국내의

조각이 드리는 네의학자의 노래 (1)

— 평양의학대학 립상연구소 리영은실장 —

얼굴 하였다. ... 이 나날에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바다 건너 이역땅에서 조국의 품에 안기고 더우기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보고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소녀시절의 체조명수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주제52(1963)년 9월 평양학생소년궁전개관식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예술체조공연을 하던 못 잊을 추억이 어제일처럼 삼삼히 떠올랐다.

어린 동무인데 참 잘한다고 제일먼저 박수도 쳐

주시고 지적체를 겸비한 조선의 훌륭한 역군이 되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그 한생토록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막히는게 없이 잘하는 그의 꿈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의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기에 과학탐구의 어려운 길을 택하였고 시알산관련효소저해력이 소고기에 비해 1.38배 더 높은 것이었다.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바다날씨가 심상치 않게 번져간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뛰어들었다가 풍랑과 맞부딪혔다.

《연구사선생, 빨리 나오시오.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웨치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헤엄쳐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멀쳐드는 파도에 휘둘리우며 조약돌처럼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해방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쓰가루해협을 헤엄쳐 건넜다는 이야기가 삶과 죽음이 셋돌아치는 순간에 떠오른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오랜 총련일군이었던 아버지는 세찬 파도를 헤갈 때 허벅다리엔 펜인 상처자리를 보여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귀환함을 절절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이렇게 쓰러질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강인함과 성격을 꼭 닮았다고 칭찬받던 내가 이쯤만 파도에 정신을 잃다니.)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물 위로 솟구쳤다. 가까이에서 발동선이 통라기리며 전조등으로 그를 찾고있었다.

색 《바다진주》가 있을것이다. 아, 《바다진주》! 그것은 다시마에서 추출한 흰색결정의 자그마한 알약들이 아닌가.

《실장선생,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그러오. 절대 안돼. 승인할수 없소!》 리광성강화장이 펄쩍 놀라며 리영은실장을 만류했다.

리영은실장은 입원실의 벽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붓고 몸에 두드러기가 돋은데다가 걸기조차 힘들었다. 해안도시의 병원에서 이곳 모교 병원까지 긴장한 치료과정이 이어졌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못하고있었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일이 피가 새듯 안라가갔다. 과연 이대로 주저않고가는 것인가. 어려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 뒤엉키며 두서없이 떠올랐다.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서정적인 노래 《나를 부르는 소리》의 선율이었다.

... 그후 그는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 혼수상태에서도 그는 바다를 속으로 자백하며 《바다진주》를 찾는 꿈을 꾸었다. 영양염류가 풍부한 다시마밭에 필경 내가 바라는 비취

큰결을을 때라고 큰결을을 때라고 ...

노래의 선율이 실려 추억의 삽화들이 떠올랐다. 공화국의 역사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써진 귀국의 배길, 부두에 물결치는 환영의 꽃바다, 어서 오라 부르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자태 ...

진정 조국의 품이 없었다면, 어버이수령님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이 없었다면 우리 일가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렇다. 저 노래는 조국을 받드는 길에 쉬지 않고 가라고, 과학탐구의 만길을 끝까지 가라고 나를 부르고있다.

리영은은 실험일지들을 종합하고있었다. 점차 마음속이 밝아지고 흥분의 조수가 그들머리 차올랐다.

위 및 심이지장계양의 발생과 재발을 막을수 있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다시마말로 얼마나 리상적인 약용해산물인가.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국내에 흔한 미역과 다시마는 동맥경화증과 고혈압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병을 예방할수 있다고 하신 교시를 자자 구구 외우며 그는 더욱 분발하였다. 며칠후 그의 출장길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안창준





독특한 차향기에 끌려

의 맛을 보기 위해 자주 이곳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 차를 마실 때마다 독특하고 순수한 맛에 감탄한다고 말했다.

은정차집에서는 특차와 홍차, 철관음차, 보리차, 메밀차, 강냉이수염차를 비롯한 각종 차를 봉사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강령특차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은정차에는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성분들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C, E를 비롯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있어 이 차를 많이 마시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비대를 막고 심장활동을 유연하게 하는데 좋으며 피로회복과 리노, 해독, 향암, 소화방지에 효과적일뿐아니라 머리

도 맑게 해준다고 한다.

은정차는 다른 나라의 차 전문가들속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여 은정차를 맛본 중국의 절강대학 차연구소 소장 왕악비는 그 맛이 독특하다고 하면서 강령특차는 국제시장에서 당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은정차집에서는 여러가지 차를 그 맛이 잘 살아나게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있는 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은정차의 독특한 맛을 보려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수 있다.

예로부터 《신선의 음료》, 《만병통치의 장생불로약》으로 간주되며 사람들의 생활에 친근하게 자리잡

은 차는 오늘날 더욱 인기가 있는 대중음료로 되고있다.

특히 창전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은정차집은 차문화의 보급거점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되고있다.

사회과학원 황선희연구사는 은정차중에서도 으뜸인 특차

공화국에서 올해에 전국적으로 19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새로 나왔다.

이미 전국각지에 금속, 석탄, 화학, 전기, 수산, 농산, 파수, 축산부분의 인재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기술고급중학교가 나와 운영되고있다.

각 도, 시(구역), 군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들의 운영 준비에 힘을 넣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들에 정보기술과목 교원대렬을 정면대로

꾸러주고 많은 컴퓨터를 보내주었다.

또한 그 학교들의 컴퓨터들을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학술일원화체계에 망라시켜

그리고 우수한 정보기술전문가들을 새로 더 배치해주어

정보기술과목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도에서 자기 지역에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남도에서도 도안의 각 시(구역), 군의 후원단체들이 지원한 정보기술설비와 수단들을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들에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정보기술전문가들을 새로 더 배치해주어

정보기술과목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도에서 자기 지역에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새로 들어난 19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

《지능》과 《기능》에서 어느 측면이 우세한가에 따라 지능수재와 기능수재로 갈라볼수 있다.

지능수재는 머리는 능력이 월등한 수재이다. 리승기, 계승상, 가우스,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이 비범한 지적활동으로 과학기술발전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능수재의 기본특징은 첫째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현상을 고찰하고 탐구, 사색하는 창조적사고능력, 둘째로 비상한 직감력과 기발한 착상력, 셋째로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성을 도출하는 통찰력과 추리력, 넷째로 설정된 문제연구에 온념을 바치는 집중력 등이다.

기능수재는 기교적활동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수재이다.

배길수, 벨레와 같이 체육활동이나 악기연주, 미술실기에서 독특한 개성과 기교적인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기능수재의 기본특징은 첫째로 감수력이 남달리 민감하고 예리하며 둘째로 운동신경과 팔, 다리동작이 특별히 세련되고 유연하며 셋째로 손재간이 뛰어난 것 등이다.

지능수재와 기능수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지능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기계적으로 분리할수 는 없으며 서로 연관침투 되어있다.

본사기자



과학의 기초

의례행사처럼 성대히 진행되던 군하였는데 정말 불만하였다고 한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석전은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과 국경지역들에 널리 보급되었다. 19세기의 이름난 그림인 《평양성도》에는 당시 평양지방의 성황을 이루었던 석전장면이 평양성전으로 유명하였던 사람의 이름까지 밝혀 묘사되어있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석전군》으로 불리우는 돌팔매질을 전문으로 하는 관군부대까지 있었다.

이 부대의 무장장비는 아주 간단하였다. 앞맞춤한 크기의 돌팔매와 돌팔매가 전부였다.

조선봉건왕조 초기 서울에서 150여명의 석전부대가 300여명의 방패부대와 군사 훈련을 벌인적이 있었다. 훈련은 두 부대가 200보의 거리를 두고 자기편 진지를 표시한 다음 맹렬한 공격으로 상대편 기발을 먼저 빼앗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훈련에 참가한 방패부대는 당시 보병부대에서 제일 날래고 용감한 군사들을 특별히 다루는 부대였다. 훈련에 참가한 방패부대는 당시 보병부대에서 제일 날래고 용감한 군사들을 특별히 다루는 부대였다.

자다가 놀라 깨 왜병들이 대혼란속에 빠져서 갈팡질팡 살길을 찾아 막마구리 꿇듯 하는것을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전후좌우로 싸고 그대로 돌이켰다.

쇠돌이는 돌주머니의 돌을 다 쓰고나자 이번에는 환도를 빼어들고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왜병들을 다치는대로 떨어냈다.

형세가 급하고 험해지자 왜적은 감히 싸워볼 엄두도 못내고 서로 앞을 다투어 뺨소니를 쳤다.

왜장 구르다 나가마사는 하루밤사이 휘하장졸 태반을 잃고 패전장군신세가 되어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퇴각하였다.

그후 왜적들은 연안성에서 불과 하루길에 지나지 않는 배천에 주둔해있으면서도 제나라로 쫓겨갈 때까지 감히 두번다시 연안성경을 넘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리정암의 통솔력이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 왜놈의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고장을 지켜낸 빛나는 승리에선 쇠돌이와 돌팔매가 한몫 단단히 깃들어있는것이다.

(필)

질 좋은 건구류들, 늘어나는 주문

공화국의 금해합작회사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질 좋은 건구류들이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회사에서는 듀랄루민미단, 여단, 사와실칸막이, 단열출입문, 창문, 가시내와 찬장류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건구류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이 건구류들의 우점은 출입문과 창문의 밀봉결층유리 사이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였으므로 열막이성능이 좋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며 내열성과 내습성이 높은것이다.

또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쉽게 변형되지 않으며 탈색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출입문과 창문, 부엌가시내와 찬장들을 제작 및 설치 봉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수요가 높다고 한다.

중구역 오란동의 한 가정주부는 이 회사의 건구류들로 부엌과 찬장, 창문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소문 그대로 손색이 없고 부엌일을 하기에 매우 편리해서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본사기자



이밖에도 회사에서는 발디지식식민지까지도 봉사하고있는데 녀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현재 회사에서는 생산된 건구류들을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봉사기관들,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들

5월에 좋은 건강식품 (1)

1. 첫물원양배추

첫물원양배추에는 비타민 B군과 K, P, E, U가 들어있다. 이 양배추에는 류황과 마그네슘, 칼슘, 칼리움, 리노, 요드, 망간 등 인체활동에 필요한 유용물질들도 들어있다. 또한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펙틴과 리진, 카로틴은 독성물질을 몸밖으로 내보내고 지방량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2. 울감자

울감자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대부분은 필수아미노산이다. 울감자에는 비타민 B군과 C, PP, 칼리움, 리노, 일산,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니움도 들어있다. 울감자는 다른 남새에 비해 열량이 높지만 적당한 량을 먹으면 비만증이 초래되지 않는다. 울감자에는 또한 유기단백보다 흡수가 훨씬 잘되는
3. 메미늘

메미늘에는 많은 량의 비타민C와 식물성항생소가 들어있다. 소화기의 기능을 개선하여 입맛을 돋우고 피를 정화하거나 분류성동맥경화증, 화농성질병을 치료하는데 메미늘을 쓴다. 메미늘은 심장혈관계통의 정상활동을 보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과 물질대사를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4. 파

5월 파에는 양파보다 비타민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 의사들은 인체에 비타민을 보충해주어야 하는 봄철에 파를 자주 먹을것을 권고하고있다. 파는 감기질병발생 위험성을 낮추고 입맛을 돋우며 소화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파를 정상적으로

민속놀이 - 석전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민속놀이중에는 석전(돌팔매)도 있다.

석전은 말그대로 편을 갈라 돌팔매질로 승부를 가르는 놀이이다.

일찌기 원시시기 짐승사냥을 위한 돌던지기에 기초한 석전은 고대시기부터 점차 무술련마의 성격과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세나라 시기에 이르러서는 인기있는 민속놀이로 일반화되었다. 력사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매해 정초에 석전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석전그림

사화

연안성의 쇠돌이 (3)

이때였다.

등, 등, 등, 등...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자 성우에서는 기름죽, 기름차배기들이 나무머미우로 런속 날아들어갔다. 런이여 활활 이는 왜구레미들이 또한 무수히 날았다. 놀들이 진종일 그렇듯 목숨걸고 쌓아올린 나무머미는 일시에 불이 붙어서 무서운 화염을 뿜었다. 왜놈들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채 불에 타 거의 형체도 없이 죽었고 살아난 늑이아야 불에 그슬려 숯감둥이가 되어 내뿜지도 못했다.

왜적들은 분이 꼭두까지 올라서 이튿날에는 북문밖산등성으로 올라가더니 며칠을 두고 공격을 들어 마침내 높다란 다락 수직계를 만들어놓았다. 놀들이 이제 그우로 올라가서 성안을 뺏히 내러다보며 총질을 할 생각인것이 분명하였다.

리정암은 또 즉시 성안에 령을 내려 늑이와 아이들에게 이르키까지 성안의 백성들모두가 벗어붙고 나서서 부지런히 흙과 돌을 성우로 나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하루밤사이 북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편 수직간 넓이에 왜놈이 쌓은 다락보다 훨씬 높은 토담이 뿜 둘러져 되었다. 이제는 다락우에 올라가서도 성안을 넘적다볼수 없게 됐다. 왜적은 또 한번 헛물을 쾨고말았다.

그뒤로 사흘동안을 왜적은 아무 동정이 없었다. 5리밖의 병영에 들어박힌 왜적은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이때 령따 나갔던 군사가 적정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이 보고하는 말을 종합하여 왜적의 왜장 구르다 나가마사가 해주와 평산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저회 수하부대들을 오조리 연안으로 불러다가 무리하고 한번 대관으로 싸워볼 생각인것이 분명하였다.

과연 나흘째 되는 날 낮부터 그 이튿날 저녁때까지에 북쪽평산과 서편 해주쪽으로 부터 왜병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마침내는 연안성밖의 그 넓은 들만이 새가땅게 덮여 버렸다. 실로 대병력이었다.

적정을 살펴러 나갔다 들어온 군사는 바로 메밀 아침에 왜적이 이 거대한 병력을 가지고 단번에 연안성을 칠

계획인것이 틀림없다고 대장에 이르렀다.

저 대병력이 한꺼번에 덮쳐든다면 조그만 성이 도저히 버지해볼 도리가 없는것이였다. 이때가 처럼 풀은 물통이나 불꾸레미따위를 가지고 막아낼수도 없는 일이였다.

비장과 관관 몇명이 동헌으로 불러들어가서 대장과 한동안 공론이 있는 모양이더니 다음에 군사 십여명이 대장의 부름을 받고 동헌안으로 들어갔다.

그가운데는 쇠돌이도 끼여있었다. 쇠돌이는 밖으로 나와 혼자 싱글벙글하였다. 오늘 밤에 연안성의 장사 열두명이 적진을 기습하기로 되어있는데 연안성안 천수백명 군사들중에서 자기가 그 장사속에 끼여있다는것이 한없이 기뻐했었다.

이날 밤 삼경이였다. 쇠돌이는 장전풍, 조선옥 등 열한명 장사들과 함께 소리로 없이 성을 빠져나가자 곧 길을 에둘러 적진위로 다가갔다.

하현달이 덩그러려 중헌에 떠있어서 10리에 려한 적의

군막들을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왜병들은 레일의 큰 싸움을 앞두고 모두 곤히 잠들었는지 군막마다 피피하니 소리가 없다. 소위 파수병들은 망들을 본답시고 여기저기 풀밭에 주저앉아 졸고있었다.

다른 장사들이 별관에 불을 지를 차비를 하고있을 때 쇠돌이는 혼자서 첫째 군막 파수위로 발자취를 죽이고 다가들러 번개같이 팔을 놀

돌에 코가 으스러지고 앞이 가부러진 그놈은 《에쿠!》 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나가자빠졌다.

그때 불길은 벌써 첫째 군막, 둘째 군막을 휩싸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불이야!》

《불이야!》

고함을 지르며 또 왜병 네댓명이 자기편을 바라고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이날따라 밤바람이 크게 일었다. 불은 군막에서 군막으로 연방 옮겨붙어 넓으나 넓은 벌판이 삼시에 불바다로 화하였다.

자다가 놀라 깨 왜병들이 대혼란속에 빠져서 갈팡질팡 살길을 찾아 막마구리 꿇듯 하는것을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전후좌우로 싸고 그대로 돌이켰다.

쇠돌이는 돌주머니의 돌을 다 쓰고나자 이번에는 환도를 빼어들고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왜병들을 다치는대로 떨어냈다.

형세가 급하고 험해지자 왜적은 감히 싸워볼 엄두도 못내고 서로 앞을 다투어 뺨소니를 쳤다.

왜장 구르다 나가마사는 하루밤사이 휘하장졸 태반을 잃고 패전장군신세가 되어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퇴각하였다.

그후 왜적들은 연안성에서 불과 하루길에 지나지 않는 배천에 주둔해있으면서도 제나라로 쫓겨갈 때까지 감히 두번다시 연안성경을 넘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리정암의 통솔력이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 왜놈의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고장을 지켜낸 빛나는 승리에선 쇠돌이와 돌팔매가 한몫 단단히 깃들어있는것이다.

(필)